

조계종-이탈리아 문화재 보존과학 심포지엄

# “복원 앞선 예방이 전제돼야”

“문화재 보존관리는 예방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보문화재 보존패트롤’ 등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안병찬 교수)

“문화재 보존과 복원은 ‘예방적 차원의 방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방 보존 활동이 작품의 피해를 줄이고 수리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파트리치아 미라콜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주최한 ‘문화재 보존과학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정보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심포지엄은 4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과 막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탈리아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재 보존과학 공동심포지엄’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의 사회·문화와 전통 과학기술, 정보가 축적된 산물”이라고 정의한 후 “정보문화재의 수리·복원과 관련한 보존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조건축물이나 석조물의 손상된 원 부재를 새 부재로 교체하며 원 부재를 폐기처분하거나 복원된 부분이 구별되지 않게 복원하는 것 등은 보존지침의 부재(不在)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원 작업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앞서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기록·관리하고, 문화재 보존 환경 관리·유류 취급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

현 상태 기록 등 ‘보존관리지침’ 시급 사찰·대학 중심의 ‘보존 패트롤’도 필요

안 교수는 “정보문화재는 제작 당시

인을 담은 ‘정보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야외에 위치한 정보문화재를 순환, 관리하는 ‘정보문화재 보존패트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트리치아 미라콜라 박사 역시 “적절한 시기에 예방과 보존을 통해 문화재의 수명을 관리하는 것이 복원 활동의 기본 원칙”이라며 “복원 작업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작품에 개입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정보문화재의 보존과학’과 3부 ‘전지류 및 건축물의 보존과학’ 발표에서는 분야별 복원 사례와 복원기술의 교류가 이뤄졌다. 김익주 연구원(경남문화재 보존연구소)이 ‘불교 목조 문화재 보존처리’를 주제로 전북 김제 흥복사 대웅전 삼존불의 복원과정을 공개했고, 코스탄자 룬고 연구원은 ‘다채로운 목공예품의 보존’을 주제로 이탈리아의 목공예품 복원 기술을 소개했다. 보존과학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웅진대)는 ‘한국 불화 및 전적의 보존처리’를, 마누엘라 자르바 연구원은 ‘이탈리아 건축물의 복원과 보존문제’를 주제로 지물과 전지류 보존과정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이탈리아 연구원들은 25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통도사와 불국사 등을 방문하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정보문화재를 직접 관람했다.

여수령 기자

## “습관 고치고 건강 지키고 혜택받고”

금강대 교직원 및 재학생 ‘빈그릇운동’ 전개

2200여명 동참 실천카드 받아

현대종립 논산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는 4월 18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빈그릇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빈그릇 운동’을 실시한다.

현재 금강대 학생과 교직원 2200여명이 참가 신청한 빈그릇운동은 점심식사 시간마다 ‘빈그릇 운동’ 참가 학생들의 잔반 여부를 확인하고 실천카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정승(학련)은 “학생 개개인의 음식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어 건강에 유익해서 좋고 크게는 식량자원이 절약되어 국가경제에 일조할 수 있으며, 또 무엇보다 급식 질이 향상되어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 일석삼조잖아요”라며 이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금강대는 매일 ‘빈그릇 우수 실천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할 예정이며, 가까운 노인회관·양로원 등에 여분 음식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 “깨달음의 길, 그 ‘과정’을 설명한다”

용두산 미타선원 간화선 수행법 특별법회 개최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내안의 부처를 찾는 길’이란 주제로 호산 스님(호산선원장)의 간화선 수행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5월 5일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란 주제로 시작하는 이번 법회는 ‘말의 원리’와 ‘몸의 세계와 원리’에 대해 12일 26일까지 3회에 걸쳐 법문한다. 이

어 6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법과 찾아 쓰는 법’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수행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문 후에는 질의시간도 열 예정이다.

하림 스님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법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051)253-8687

하성미 기자

범하·흥선 스님 문화재 위원 선정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과 흥선 스님(직지사사보박물관장)이 4월 25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의 문화재위원에 위촉됐다.

문화재청은 25일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200명을 새로 위촉했다. 범하 스님은 동산문화재분과에, 흥선 스님은 무형문화재분과에 각각 임명됐다. 문화재위원장은 안희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분과와 예능분과로 분리, 증설하고 민속문화재분과와 문화재경관분과를 신설해 전문성을 더했다.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 창립

청주청원지역 불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청주청원 조계종주지협(회장)이 창립됐다. 4월 24일 청주 수도원(원장 설곡)에서 발간인 총회를 개최한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회장)은 불법을 흥포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 창립한 단체. 앞으로 소외계층을 지원 지원사업과 봉사활동, 지도자 연수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설곡 스님이

회장에, 석담 스님(지장사 주지)과 묘정 스님(보문정사 주지)이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주지 진산식 및 부도탑 제막식

청주 풍주사(주지 덕익)는 5월 10일 관음전에서 덕익 스님의 제2대 주지 취임 진산식을 봉행한다. 또한 이날 범주당 정수 대좌상 부도탑 제막식과 유교집 출판 기념 법회도 함께 열린다. 청주 풍주사는 지난해 6월 임직된 범주 스님이 1966년 건립한 사찰로, 신도 5천여 명이 찾는 청주의 대표적 사찰이다. 사찰 내 풍주선원고 고시원을 마련해 출·재가를 막론한 교육포교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043)256-5585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대구 화엄불교대학 세계기아 돕기 공연

대구 화엄불교대학(학장 진귀)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 행사를 연다. 화엄불교대학은 5월 5일 네팔국립무용단을 초청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 어린이 날 특별공연’을 펼친다. 또 합창단 공연과 마술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날 공연 수익금은 네팔정부와 유니세프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손병천 대구지사장

## “구원과 해탈 지향점 같다”

교불련-기독교교수협 제2회 공동학술세미나

“생태적 삶 실천 공통점”

불교와 기독교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해탈’과 ‘구원’의 참뜻과 우리네 삶 속에서 이 지향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오)는 4월 2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구원과 해탈’을 주제로 제2회 ‘기독교-불교교수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내려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은 ‘구원, 오늘 우리의’라는 발표에서 “구원은 나라는 존재가 이미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하느님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구원은 자력적이라기보다 근원적으로 타력적이지만, 자력이라는 것 역시 ‘타(他)’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원장은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근원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열반’의 의미는 이념을 참여불교연대

공동대화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열반이 종교적 오메가로 부각된 것은 서구 기독교적 발상”이라며 “열반은 현실의 고통, 인간적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이원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반의 한계가 윤회이고 윤회의 한계가 열반이며 이 두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 홍수의 이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구원과 해탈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명권 코리아아쉬람 대표는 “구원의 결과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해탈의 결과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 곧 보시(布施)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최중석 교수는 “구원과 해탈은 곧 의인(義人)과 보살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범용 스님, 포교당 담마원 개원



“무보시 담마도 그리기”의 주인공 범용 스님은 5월 7일 부산 초량동에 해인사 포교당 포교원을 개원한다.

범용 스님은 “담마도는 기복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마(다)를 닦아가기 위한 것이다”며 “담마도를 그리면서 2년 동안 포교원 불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정기법회를 열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담마도 10만점을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1)441-0981 하성미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제23교구 산중총회 입장표명

1. 근간에 제23교구본사주지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본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상 광고, 성명서, 인터넷을 통한 잡음조성과 유포 등은 본교구와 관계없는 외부인사들이 불순한 의도와 목적(제23교구를 빼앗으려는)으로 생산하고, 조작하고, 퍼뜨리는 악의적 소행임을 밝힌다.
2. 이렇게 불순한 움직임에 동원된 제23교구 관련자 몇 분은 사설사당 관계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제주불교 근본도량 건설을 위한 관음사 성역화 불사에 10원 한 장 보탬바가 없고 교구본사 주도의 지역사회 불교행사와 불사에 일체 협조가 없었던 분들로서 엄치와 상식이 있다면 본사주지문제에 알기알부할 수 없는 처지의 분들이다.
3. 종단 각기관의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제방의 대중스님들께서는 이들의 악의적 잡음조성과 유포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제23교구를 지키는 승가의 본분으로 제주불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23교구를 빼앗으려는 그 어떠한 음모와 책동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중헌종법을 수호하고 교구자치권을 엄정하게 지킬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2551(2007)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제23교구 산중총회대중일동

## 중헌종법과 교구자치권 수호결의

작금 본교구승가 자치와 교구자치권 침해 음모와 책동에 대한 대처 결의

1. 우리는 제23교구본사주지선출과 종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본교구의 승가자치와 교구자치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비승가적인 외부의 책동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2. 우리는 한국불교의 승가전통규범을 파괴하려는 반승가적인 음모와 책동으로부터 청정승가를 유지 보존하고 교구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헌종법과 교구자치권수호제23교구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3. 중헌종법과 교구자치권수호제23교구대책위원회에 산중총회의 전권을 위임한다.
4. 대책위원회에는 종단상황과 필요에 따라 재가불자와 연대하거나 재가불자와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확장할 수도 있다.
5. 대책위원회는 제23교구자치권을 침해 훼손하려는 책동의 근원이 되는 종단의 각종 선거 관계 폐단시정책을 전종도와 더불어 강구하여 청정승가를 회복한다.
6. 교구자치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본교구에서는 서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비밀투표를 일체 보류하고 승가의 민주적 전통규범인 대중공사에 의하여 산중의 공론을 결정한다.

불기2551(2007)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제23교구 산중총회